

군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간담회

내년부터 작가와의 대화, 독서회, 전시 등 적극 지원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관내 지역서점 대표들과 도서생성센터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이 발의 제정한 '군산시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뒤 처음 진행된 간담회다.

조례 내용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 문화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 진행 지원과 홍보에 관한 것이 주된 핵심이다.

이날 지역서점(생활문화시설) 대표들은 "대형 온라인 서점에 점차 사라져 가는 지역서점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그 동안 침체 되어 있던 독서문화를 활성화 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지역서점(생활문화시설)에서 작가와의 대화, 독서회, 전시 등이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 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전북최초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마리서사, 양우당, 우리, 예스트, 한길문고), 20개 공공도서관 이외의 지역서점에서도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도서관 이외의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네 지역서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48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다채

신나는 타악 퍼포먼스, 감미로운 클래식·재즈 공연, 감성예술 샌드아트 등 진행

익산시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30일과 해당 주간(10.28~11.3)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보석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축제의 계절 10월을 알차게 채울 예정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랩스틱 타악 콘서트'를 진행한다. 클래식 타악기 외에도 페인트를 재활용품을 이용한 연주로 신나는 타악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로 전화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소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30일 오후 7시 30분 '퓨전퍼커션밴드 POLY'가 새로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클래식 음악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재즈, 펑크, 브라질리안, 아프로 큐반 등을 혼합하여 이전에 대중들이 흔히 접할 수 없었던 크로스오버 클래식을 연주할 예정이다.

영등도서관에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가 사랑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강연을 진행한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오페라에 대한 설명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도도서관에서는 30일 오후 7시부터 사진 접수한 다문화가족 20팀과 실내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홈가드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는 30일 오후 7시 영화 '덩케르크'를 무료 상영하며, 익산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30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익산=장민천기자

익산, 미세먼지 저감 원탁회의

익산시가 지역의 다양하게 펼쳐진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등 환경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주도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에 시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클린익산 만들기 가 한층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가을철 심해지는 미세먼지 민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익산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선정한 정책과제는 △비산먼지 집진 대책과 익산형 비산먼지 대책연구 △악취 저감 대책 △불법 노천소각 단속 △자원재활용 대책 △교통·수송대책 △친환경자동차 교체지원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민간군 지원 △녹지조성 △외부요인(중국, 새만금) 대책 수립 △미세먼지 시민거버넌스 구축 △경유차 폐차지원 불법유용 규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녹지조성이 23.3%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고 미세먼지 시민 거버넌스 구축이 18.9%, 불법 노천소각 단속 및 재활용 대책 16.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시민 스스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동참하기 위한 선정된 실천과제는 △일회용품 근절·분리수거 철저·예코백 사용 △나무쓰기 △대중교통 이용, 걷기·자전거타기 생활화 △불법소각 금지 등이며 이 가운데 일회용품 근절 및 분리수거가 29.7%로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익산시는 선정된 정책·실천과제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반영과 실행 계획을 검토해 현실화시키고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장민천기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48차 월례회

익산시의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동시착공 건의안' 등 채택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지난 25일 제248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와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의건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병술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시·군 의장과 박철웅 익산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과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인접 국도 1호선 선형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시·군별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의회차원에서 선진 지방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과 역량을 결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방안을 찾는 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장협의회가 각 시·군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2019 국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각 시·군에 국화축제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양주시 방문단, 군산 은파호수공원 벤치마킹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환경복지국 직원 25명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

남양주시 방문단은 조광한 시장, 이윤복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한 물의 정원 TF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금강생태습지공

원, 금강철새조망대, 군산시간여행거리, 고군산군도 등 지역의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남양주시 내 북한강변에 조성된 48만 4천 평방미터규모인 "물의 정원"의 생태체험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우리시 은파호수공원의 자연친화적인 시설 및 시민들의 높은 활용현황 등을 견

학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특구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남양주시 공직자 분들의 군산시 방문을 환영하고 우리시의 많은 곳을 보고 많은 것을 알게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은파호수공원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숨쉬고 휴식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산재장애인협회군산지회, 희망음악회 개최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군산지회(회장 김종백) 주최로 산재장애인과 일반환자들을 위한 희망음악회가 열린다.

29일 의료원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뿐 아니라 군산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이며 올해로 14번째를 맞는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테너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통기타와 우쿨렐레 등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악기 연주와 소프라노, 민요, 실버합창단의 음악공연도 펼쳐진다. 이 밖에도 시낭송과 댄스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돼, 잠시나마 치료와 간호에 지친 환우들과 가족들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백 군산지회장은 "산재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만큼,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일상의 삶을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도 장애인이 된 산재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신체의 질병과 치료로 지친 환우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고자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농협은행·전북은행과 시 금고 약정 체결

2020년부터 3년간 관리

군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시 자금을 관리하게 될 금고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고지정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군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심의결과 1위를 차지한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

지 일반회계(2019년 본예산 기준 1조 34억원)를, 2위를 차지한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2019년 본예산 기준 각각 1,298억원, 441억원)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8일 시 금고 지정 공고를 했으며 이후 해당 금융기관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뒤 지난 21일 약정을 체결해 미래 군산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